

# 與 “7개월 뒤 韓해역서 방사능 물질 나오면 책임질 것”

### 국민의힘 TF, 해수부·수산업계 회의서 밝혀 민주당, 대정부 비판 공세 수위 끌어 올려 송갑석 “與, 온갖 핑계대며 합의 이행 미뤄”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2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7개월 뒤 국내 해역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와 수산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마친 후 “민주당은 검증되지도 않은 외국 자료를 인용하며 5~7개월 후 우리 바다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것이라 주장해 계속해왔다”며 “5~7개월 뒤 대한민국 바다에서 이런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 위원장은 “민주당은 2011년(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출로 우리 바다에 어떤 영향도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국제적 기

준 내(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알고 있으면서도 당 대표를 비롯해 정치적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 여론이 호도되고 있다면 후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을 따져보는 전문가 토론회를 여야 공동으로 개최하자고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TF와 수산업계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적극 개입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성 위원장은 “소비 촉진을 위해 과감한 예산 편성을 통해 우리 어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조만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28일 국회에서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 후쿠시마 과담 대응·어민 보호 대책 간담회’를 갖고 있다(왼쪽).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후쿠시마산(産) 세슘 검출 우려” 논란으로 인해 국내 우럭은 물론 멧게, 전복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며 “해수부에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매 비축을 통해 우리 수산물 가격을 지지하겠다”며 “전복 등 품목에 대해서는 할인행사를 바로 추진해 소비

유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움직임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정부 비판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 의에서 “국민의 불안은 극심하고 민생은 비상인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먹방쇼와 과담몰이에 혈안”이라며 국회 검증 특위 구성에 동참할 것을 여당에 촉

구했다. 그는 “이미 여야는 지난 8일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 및 청문회 개최를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3주가 지나도록 국민의힘은 온갖 핑계를 대며 합의 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은 원내대표는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여당이 퇴장한 것을 문제 삼으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밸브를 열면 오염수는 우리 바다로 들어온다”며 “정부·여당은 더 늦기 전에 일본 정부와(방류계획 철회를) 협의하라”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 여수 국가산단 안전진단 설명회 ‘성황’

### GS칼텍스·LG화학·여천NCC 등 9개 사업장 참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사업 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국회의원(여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남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사업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과 여수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감독관, 김인성 한 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실장, 이병

철 전남도 사회재난과장, 염동일 한 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장 등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들이 참석해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정밀 안전진단에 참여하는 GS칼텍스, LG화학, 여천NCC, 한국바스프, 동성케미칼,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켄, 이일산업, 케이알코폴리머 등 9개 사업장의 공장장과 노조위원장, 여수산업공동발전협의회 등도 참석했다. /김진수기자

## ‘영광굴비 지리적 표시제’ 가능해진다

### 이재호 대표발의 법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재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영광굴비 등 그동안 생산지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해 막혀있던 수산물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 길이 열릴 전망이다.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의 품질 향상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등록제다.

그러나 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당해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만을 가공해야 지리적 표시제를 인정, 그동안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과는 달리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2021년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영광굴비 등 수산물 가공품의 지리



적표시제 등록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당시 해수부 장관으로 부터 제도 개선 약속을 받아 낸 바 있다.

그러나 법 해석을 둘러싼 법제처와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정부의 제도 개선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11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수산

## 이병훈 ‘관객수 부풀리기’ 처벌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은 28일 영화관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고의 누락하거나 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비정상적 유형의 입장



권 발권 시도가 통합전산망에 집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통합전산망의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영화진흥위원회가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

품질관리법’은 그동안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던 농수산물을 농수산물,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이 밖의 수산가공품으로 세분화하고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이 법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연구회에서 어획되는 특성에 따라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영광굴비 등 가공지역의 특수한 처리 방식을 인정받는 수산가공품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하루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영광굴비 등 지역을 대표하는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관객 부풀리기 행태에 대해 영화계 전체가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영화진흥위원회 또한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거나 부실 검증으로 일관하며 비정상적 발권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